

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
	배포일자	2021년 9월 7일(화) 총 3매	
담당 부서	인천문화 예술회관	담당자	• 기획운영팀장 이동선 ☎420-2710 • 담당자 정수산나 ☎420-2736
사진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도시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가을을 물들이는 12대의 첼로 선율
- 9월 15일(수) 오후 2시, 첼리스트 첼로 앙상블 <가을산책> -

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, 인천문화예술회관의 대표브랜드 공연 <커피 콘서트> 무대가 중후한 첼로의 멜로디로 물든다.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9월 15일 오후 2시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국내외 클래식 음악계 중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첼리스트 12명으로 결성된 ‘첼리스트 첼로 앙상블’의 공연 <가을산책>이 개최된다고 밝혔다.

‘첼리스트 첼로 앙상블’은 국내 및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 첼로 수석들과 국제 콩쿠르에서 수상경력이 다양한 첼로 주역들로 구성돼 있다.

리더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박상민 교수를 비롯해 서울대학교 김민지 교수, 중앙대학교 주연선 교수와 첼리스트 강미사, 김소연 등 12명의 실력과 첼리스트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. 편곡을 맡은 작곡가 안성민이 해설로 나서 더 편안한 감상을 돕는다.

12첼로의 편성으로 비탈리의 샤콘느,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등 정통 클래식은 물론 베르디의 《리골레토》 중 ‘여자의 마음’, 푸치니의 《투란도트》 중 ‘아무도 잠들지 말라’ 등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.

그 외에도 거쉬인의 ‘랩소디 인 블루’와 비틀즈의 명곡들을 새롭게 편곡해 대중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무대를 꾸민다. 수준 높은 연주, 친근한 레퍼토리로 첼로의 무한한 매력을 발산할 첼리스트 첼로 앙상블이 이 가을을 더 근사하게 장식할 것이다.

커피콘서트Ⅶ. 첼리스트 첼로 앙상블 <가을산책>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객석의 30%인 140여석만 예매 오픈 한다.

또한 입장 시 출입 확인 및 발열체크, 공연장 내 상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강화하며 공연장을 찾은 관객과 스텝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.

한편 2008년 시작해 7만여 명의 관객들과 만나며 인천문화예술회관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은 <커피콘서트>는 매달 한번,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마티네 콘서트(Matinée Concert)이다. 이번 공연 이후 국악 아카펠라 토리스, 베이스 함석헌, 가수 홍경민의 무대가 관객을 기다린다.
문의) 032-420-2736

※ 2021 커피콘서트Ⅶ. 첼리스트타 첼로 앙상블 <가을산책>

- 공연일시 : 2021년 9월 15일(수) 14:00
- 공연장소 :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
- 관 랑 료 : 전석 1만2천원(커피 미제공으로 인한 3천원 할인가)
- 예매문의 : 인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, 엔티켓 1588-2341
- 관람연령 : 8세 이상 관람가

<붙임> 관련 사진

	
<p>포스터 이미지</p>	<p>첼리스트타 첼로 앙상블</p>